

單子的個我論(下)

韓稚振

그 所謂去來라 하는것은 一人에게서 他一人에게 무엇을 주고 받는것이 아니라. 그 眞意인즉 各自가 各自 스스로 주고 받는다 하여야 正解라 할 것이다. 내가 내의 親友에게 말한다하면 그 말이 留口機에 지어 넷트 드러가는 것이 아니며, 또한 내가 무슨 말을 듣는다 하면 耳란 器官으로 그대로 드러와 있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스스로 말의 뜻을 참조해야 하나니 그 創造는 外的이 아니고 內的인 것이다. 이래서 내의 理解는 내가 한 것이오. 내의 友가 해서 준 것은 아니다. 各各自己가 말하고 理解하는 것이니 이럼으로 各自의 理解가 相異하고 思想이 不一한것이다. 것던 兩人間에 무슨 거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주고 받음으로 아모 損害가 업고 다만 得하는것 뿐이니, 그 理由는 出去하는것이 섭슴으로 써라 그 得한것은 自我에서 創造한 것이다. 外界에 세울 處所도 업거니와 來한 門이 업다는 것이다. 萬一 普通人이 生覺하는것과 如히 彼此주고 받는 것이 事實이면, 이 世上은 一朝에다 滅亡하게 될지니 그는 創造所를 不認하였을 뿐 外라. 定着이 업는 無秩序로 變化해 버린 싸닭이다.

創造란 其 意味가 말서 外 具의 影響을 不認하는 것이다. 內面에 업든 것을 外 具에서 갖다 드린 것을 創造라 할수 업다. 內面에 업든 것을 거긔서 있게 하는 것이 곳 創造이다. 그러면 아모것도 업든 곳에서 엇더케 무엇을 있게 할가. 이야말로 神秘라 하면 神秘일 것이다. 원악 創造란것은 이 神秘 투성인것이다. 吾人은 여기서 創造的 進化論을 말코져 아니한다. 다만 創造는 內在的인것과 업든것 있게 하는 進化作用이라 하는 것만 말할 뿐이다. 우리는 흔히 如此한말을 듣는다. 「남의 것을 내의 것으로 化하자」 이것 또한 무슨 말 일가 여기도 別로 新奇한 點은 업나니 以上の 말을 되푸리 하면, 自我化二字義만 解釋하고도 알 것임으로 써라 自我化! 내가 무엇이든지 變化시켜 내것을 만든다는 意가 아닌가. 이 自我化한다는 것은 立意할 것 업시 外

的이 아니요. 內的이 아니냐. 이래서 내의 것이 友의 것이 될 수 업고, 내의 友의 것은 내의 것이 될 수 업는 것이다. 나를 超越할 수 업는 것이다. 自己의(상투)를 잡아 自己를 들 수 업슴과 가치 내가 他人이 될 수 업는 것이 다 나는 나요. 너는 너인 것이다. 母가 子를 愛하는 理致도 그 母愛가 子에게 兒孫들이 球을 送하듯 傳하는 것이 아니라, 母自己가 母愛라는것을 發하는 것이며, 子가 母愛를 受한다는 것도 事實은 不然하여 子스스로가 母愛하는 것을 感하나니 卽 自己의 限內에 屬한것이다. 다시 말하면 母는 子에 對한 愛를 發하는 本能을 가져슴과 가치 子는 母愛를 自感하는 本能을 發하는 性質을 가졌다는 것이다. 子母間의 무슨 精神的 交通은 彼此가 乳를 주고 받듯 交換함이 아니고, 다만 各各 스스로 自己의 것을 發表하는 것 뿐이다.

그러면 엇더케 子母間에 各自에 當한 愛를 發表하는가. 그 發表의 媒介는 言語이니 이것은 實로 人의 最□의 所有物이다. 言語는 意思의 表象이니 이 言語表象은 固定的 代表的 一致的으로 人類의 意思交通의 便利的 創造物이다. 이것으로 因하여 母子間에 交通이 可能하며 이것으로 因하여 各自裏面이 特性을 發表한다. 卽 媒介物인 言語한 交通者間에 엇더케 하자는 便利를 爲한 臨時的 契約과 갖은 것이다. 그러나 아모도 仔細히 하노라고한 契約的 言語이나마 그 言語로 發表되는 意思의 內容에 잇서 서는 또한 各人에게 限하여 各殊히 알고듯고 使用하는 것은 事實이다. 이래서 同一한말을 듣는다 하드래도 千人이면 千人이다. 各殊하게 듣는 理由였다. 換言하면 各自의 一般 經驗에 照하여 自己멋대로 覺悟한다는 것이다. 卽 各各意思를 別異하게 가지는 이만큼 發表도 別異하게 한다 함이다. 이것이 各各自己 스스로 하는 理由이며, 外界에서 影響맞아 되는 것이 아님으로써 이다. 이에 單子論을 結하려 한다면서 論한 物質的 單子論은 理性的 分析法으로 萬有를 不可分的 極少의 單位에 至하였고, 精神的 單子論은 個我論은 萬有를 그러케 分析하라 하지안코, 萬有의 根本的 實在는 根本부터 分析할 수 업는 單純한 體로 되어 잇고 그 體는 質的으로 普遍的 極大라 하는 것이다. 이러한 精神的 單子는 各自우리의 經驗에 照하여 그의 存在를 차즌 것이다. 그런데 이 單子的 經驗은 物質的 單子和 가치 極少한것이 아니라 極大한 것이다. 當初에 分析이란 方法은 이 極大인 經驗單子에 應用할수업다. 分析이란 벌서 物質을 豫想한것이다. 우리의 經驗은 根地부터 綜合的 一致的이기 새문에 分析할 餘地도 업다한다. 이 分析할수업는 統一 즉 普遍體는 곳 單子的 我라는 것이요. 哲學의 根本研究事項인것이다.(긋)